NEWS

국내·외 업계 동향

■ 작년 화재 하루 89건, 피해액 1,597억원

지난해 전국적으로 3만2천664건의 화재가 발생, 하루 평균 89건꼴로 불이 났으며 재산피해액은 총 1천597억2천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자치부가 펴낸 「'98 화재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 발생건수는 전년도(2만9천472건)에 비해 10.8% 증가했고 사망자는 505명으로 '97년(564명)보다 10.5% 줄었다. 화재로 인한 소실면적은 122만4천365㎡, 가옥 1천555가구가 소실되어 4천103명의 이재민을 낳았다.

화인은 △전기화재가 33.4%(1만897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담배 11.8%(3천865건) △방화 9.4%(3천56건) △불장난 5.9%(1천938건) △가스 5.6%(1천827건) △불티 5.1%(1천668건) △유류 1.5%(475건) △아궁이 1.4%(464건) △난로 1.2%(391건) △성냥·양초 0.7%(222건)의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주택·아파트가 30.2%(9천854건)로 가장 많았고 △차량 16.5%(5천377건) △공장 7.4%(2천427건) △점포 5.4%(1천769건) △음식점 5.2%(1천694건) △창고 2.4%(779건) △사업장 1.6%(530건) △호텔·여관 0.9%(279건) △학교 0.7%(221건) △선박 0.4%(118건) △시장 0.2%(58건) 순이었다. 계절별로는 겨울(12, 1, 2월)에 9천525건이 발생,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봄(3, 4, 5월) 8천494건, 가을(9, 10, 11월) 7천657건, 여름(6, 7, 8월) 6천988건이었으며, 월별로는 3월이 3천559건으로 가장 많은 반면 7월이 2천253건으로 가장 적었다.

— "중앙일보"('99.5.6)

■ 화재·폭발위험 건축물 공사장 3개월마다 검사 의무화

노동부는 오는 6월부터 화재와 폭발의 위험이 있는 건축물 공사장은 3개월마다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안을 5월 20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냉동창고 신축공사와 같이 화재 및 폭발 가능성이 있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개조, 해체할 때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3개월에 1회씩 확인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계속 지키지 않는 공사장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현재 "유해 및 위험방지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 중 지상 높이 31m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6개월마다 1회씩 공단의 확인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 신설에 대해 노동부는 부산냉동창고 폭발사고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99.5.20)

■ 11손보사, 당기순익 2,193억 265% 폭증

IMF체제하에도 불구, 11개 원수 손보사들은 '98 사업연도에 2,19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본 반면, 서울보증보험은 1조8,180억원의 적자를 냈다.

금감원은 28일 FY '98 손보사 경영실적 결과, 보험료는 경기침체 등 영향에 따라 14조2,536억으로 전년 대비 12.7% 감소했음에도 불구, 당기순이익에 있어 11개 원수사의 경우 전년 600억 흑자에서 2,193억원으로 265%나 늘었다고 밝혔다. 또 비상위험준비금도 1,698억원을 추가로 적립했다.

당기순이익에 있어서는 삼성화재 1,00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부 437억, LG 261억, 동양 195억, 현대 161억원 등 순이었다.

경과손해율은 78.9%로 전년도와 같았으며 11개 원수사 중 대한화재가 77.5%로 가장 낮았다.

총자산은 22조4,295억원으로 전년 대비 12.5% 증가했다.

자산 운용에 있어서는 수익증권 비중이 높아 유가증권 투자비율이 전년 32.1%에서 42.3%로 크게 증가한 반면, 대출 비중은 22.4%에서 15.8%로 낮아졌다.

— "금융보험통신"('99.5.29)

■ 내년부터 보험요율 자유화

내년 4월부터 도난·화재·동산종합보험 등 재물보험의 보험료가 평균 6~7% 가량 줄어든다. 5월 10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18일 손해보험 사장단은 회의를 열고 순수위험요율을 제외한 나머지 요율을 자유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보험요율 결정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현재는 손해보험사가 상품을 개발할 때 보험개발원이 보험요율을 확정하기 때문에 모든 손해보험사의 보험료가 같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많은 지적이 있었다"며,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시장원리에 충실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번에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재물보험의 경우 변동폭이 큰데, '95년 수준으로 봤을 때 50%, 현재 기준으로 보면 6~7% 정도 할인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 "보험신보"('99.5.31)

■ 세계보험중개인연합회(WFII) 발족

세계 86개국 보험중개인들의 국제적 기구인 「세계보험중개인연합회」(WFII)가 발족했다. EU의 보험통합 등 보험산업의 세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보험중개인으로서 국제적인 제휴가 필요하여 조직되었다.

창립 총회에서 이사회 위원으로 유럽 6인, 미주 6인, 중남미 3인, 아프리카 2인, 아시아에서는 IBAJ의 회장이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회장에는 네덜란드 보험중개인협회의 명예회장 얀 바이텐버그가 취임했다. WFII는 앞으로 세계무역기구, 국제보험감독자협회,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상공회의소 등 국제기관에 대한 로비 활동과 국제거래에 있어서 보험중개인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 "보험매일신문"('99.4.15)